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 EU, 잔류 농약, MRL, 기준치, 검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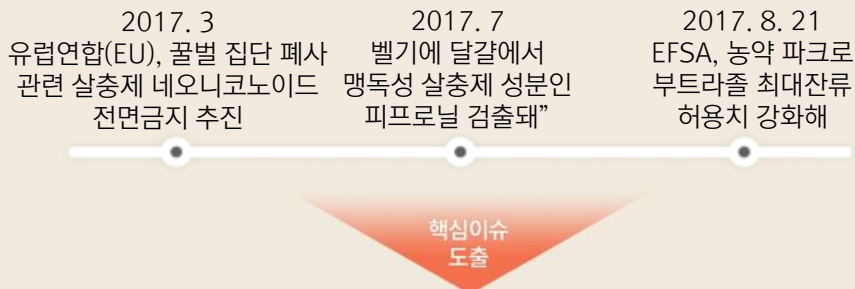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유럽연합, 농약, 살충제, 기준치, MRL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유럽 식품안전청, 농축산물 품목들에 대해
농약 최대잔류 허용치 개정**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유럽 식품안전청, 농축산물 품목들에 대해 농약 최대잔류 허용치 개정

유럽 식품안전청(EFSA)이 이달에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및 살충제에 대한 최대잔류농약 허용치(MRL) 개정을 5번 발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자몽, 라임, 오렌지, 레몬 등 시트러스 계열 과일 및 상추, 브로콜리, 감자, 계란, 돼지, 소 등이며, 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하고 자주 접하는 것이다. 또한, 변경된 농약 및 살충제 성분은 이마잘릴(Imazalil), 플록사피록사드(fluxapyroxad),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트리클로피르(Triclopyr),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등이 있다.

이러한 최대잔류농약 허용치 개정이 모두 강화된 것은 아니다. 기준이 약화돼 농약을 더욱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반대로 전보다 강화돼 수출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성분도 늘어났다. 이러한 기준치 변경은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엄격한 MRL 기준을 가진 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7월 및 8월에 유럽과 한국에서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문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자아냈다. 이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며, 각국이 모두 연결돼있는 글로벌 사회에서 이러한 파동은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부적합한 농축산물 생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및 농가 차원에서의 대비가 철저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유럽 식품안전청(EFSA)이 농약 및 살충제에 대한 최대잔류농약 허용치(MRL)를 올해 9월에 총 5차례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약화하거나 강화하는 것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EFSA가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용 가능한 농약을 목록화하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잔류하는 모든 경우에 일률기준 0.01mg/kg만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에 농작물을 수출할 시, 목록화돼 있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사용 금지 수치인 0.01mg/kg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 ‘살충제 달걀’ 파문을 겪은 유럽연합이 농작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대한 농약에 대한 안전을 위해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 분명하므로 항상 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 Residue contents were ten times higher in the past, Fresh Plaza, 2017. 9.22

2. EU wants food safety officer in each country, Irish Farmers Journal, 2017.9.27